

구체적 실현계획 갖춘 '마가'...8년 전과 확 달라진 취임사

〈Make America Great Again〉

2017년 취임연설에선 '미국 우선주의' 원칙만 제시
16분→32분...올해는 대선압승 토대로 변혁 자신감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다.

2017년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대선에서 승리한 '아웃사이더'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취임사에 반영됐다면, 올해는 원칙과 실현계획을 겸비한 정치지도자의 면모가 전면에 부각됐다.

2017년 16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유세 연설에 비해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대선에서 승리한 '아웃사이더'인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과 같은 비정규직 인물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워싱턴 D.C의 정치인들이 온통 자신

들의 부를 불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도시 빈곤층 증가와 공업지대 쇠락, 교육 시스템 붕괴, 범죄 급증 등의 문제가 미국의 기반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이 미국의 부와 일자리를 훔쳐 가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2017년 취임사에 담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하면서 "간단한 2개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만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원칙 두 가지는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2025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훨씬 길어진 32분 분량의 취임사에 담았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개시하고, 외국의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하는 등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 계획뿐 아니라

문제점을 설명할 때도 8년 전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취임사에 포함되면서 취임사의 길이도 2017년 16분에서 올해 32분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언급을 늘렸다.

그는 2017년 취임사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자신을 '250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탄압받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는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취임사에 담았다. 암살의 위기에서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발언도 했다.

자신에 대한 발언이 취임사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자신감이 배겨난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는 국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초보 정치인으로서 국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면, 올해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다.

/연합뉴스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

바이든 행정조치 등 무효화 서명... '기후변화협정 불공정·美 갈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지자들 앞에서 파리기후변화 협정 재탈퇴를 비롯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한 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행정명령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개를 철회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연설에서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 행정 조치"라면서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 정부 기관의 물가 총액 대

응 지시 ▲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외중에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으며 지지자들은 "유에스에이" 등을 연호했다.

그는 또 파리기후변화 협정과 관련,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물질이 미국으로 날아온다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사보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집권 1기 때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지난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이번에 다시 탈퇴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과 관련,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으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 만 등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서인양구 내 극우 이슬람 정파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도 취소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北 '핵보유국'...내 귀환 반길 것"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 재차 밝혀... 대화 재개 기대감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그(김정은)가 엄청난 콘도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활성화되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